

한국 고건축 양식을 응용한 반(盤) 디자인

이 종 수¹, 김 명 태^{†,2}

¹공주대학교 대학원 조형디자인학과, ²공주대학교 조형디자인학부

A Study on Soban(dining table) Design Applying of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Jong-Soo Lee¹, Myeong-Tae Kim^{†,2}

¹Department of Formative Design, Kongju National University, Goungju 314-701, Korea

²Major in Furniture Design, Division of Formative Design, Kongju National University, Goungju 314-701, Korea

Abstract: Furniture can be a product of design and is considered a form of a decorative art. Architectural works are often perceived as cultural symbols and as works of art.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al form and wooden furniture were improved by adding up an organic coordination in the interior space. Furniture adds beauty of life by being coordinated with the interior space with its particular characteristic in the form of architectural structure. Architecture and furniture are also being improved in a more natural and diverse way. Therefore, in this research, from the choice of the location,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is considered to be coordinated with the nature, and the technical skill is lessened to express its beauty. There is a presence of elegance yet robust combination of simplicity and beauty. In addition, the traditional architecture and wooden furniture are completely expressed structurally with coordination of the outstanding design and solid structure according to the thrifty living in the Confucian ideas which influenced the Korean traditional society. The representative of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Baeheulrim pillar, has worked as motive because of its visual comfort caused by optical illusion and formative elements. The small portable dining table (Soban) which reflects the characteristic of Korean unique tradition and the sensitivity of Koreans has been reinterpreted through the motive in this research. As a result, it has shown the possibility as the design element to change the aesthetic structure. In the modern society, cultural identity plays a vital role. Therefore, this research can be used as reference for the new concept of furniture - making. It could be a combination of modern people, lifestyle and living space by creating the Korean image suitable for the modern society.

Keywords: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Baeheulrim pillar, Construction, Soban

1.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고건축은 모든 국가의 고유문화의 상징적 표상이다. 문화란 구성원의 의식과 생활양식 총체를 지칭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한 민족이나 국가의 특성을 지칭하는 민족문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

2014년 3월 13일 접수; 2014년 4월 15일 수정; 2014년 4월 16일 게재확정

[†] 교신저자 : 김 명 태 (mtkim@kongju.ac.kr)



Fig. 1. Yunjeung old house.

되어왔다.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문화는 이러한 전통적 개념도 적용되지만, 실재하는 문화의 영역이 민족이나 국가에서 세계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 나라의 문화나 사회, 전통 등 시대 문명을 대변해 주는 하나의 구성물인 건축은 공간적, 시간적, 민족성, 조형성 등의 집합체로서 건축에 대한 조사와 그것에 근거한 활용방안의 모색은 그 나라의 문화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된다.

이에 본 연구는 그 나라만의 고유문화가 충실하게 표현된 고건축에 관점을 두고, 한국 고건축 본연의 양식들 중 대표적인 배흘림기둥의 조형적 특성을 응용하여, 우리민족의 고유한 전통을 지니고 독특하게 발달한 반의 특질을 구조적, 조형적인 측면에서 추출하고, 이를 토대로 현대적 공간구조에서도 확고하게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한국 건축미의 고유 가치를 인식하여, 전통건축미의 현대적 해석을 통해 반의 구조에 적용함으로써, 현대인의 기호와 생활공간에 접목될 수 있는 신개념의 실용과 조형의 조화를 고려한 조형가구 디자인개발에 그 목적을 둔다.

1.2. 연구범위 및 방법

하나의 건축물은 그 시대의 사회·문화적 특징을 내포하고 있는 정신적 산물이다.

한국 고건축의 대표적 구조는 목조가구식(木造架構式) 건물이며 거듭 되는 국난으로 불타고 파괴되었기 때문에 비교적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조선시대 건축물과 한국 건축의 미를 극명하게 느낄

수 있는 사찰 건축물로 국한한다. 그리고 조선시대 가구와 마찬가지로 선과 면의 단정하고 쾌적한 구조미가 바탕이 되는 가구 중 소반은 식상으로서의 용도는 크게 변함이 없으나 제작 구조와 형태가 생산지별로 독특하여 다종다양하나, 본 연구에서는 나주반과 통영반을 기반으로 둔다.

본 연구 범위는 한국 고건축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 중에서 한국 건축의 균형미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배흘림기둥의 안정성과 착시효과와 조형성에 주목한 조형미를 디자인 모티브로 선택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각종 문헌과 선행연구를 참고로 하며, 반의 형태와 구조를 분석하고, 한국 고건축의 시각적 효용성을 부합시켜 인간과 생활공간을 연결해주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이 부여된 조형가구를 프로토타입(Prototype)으로 제작한다.

2. 고건축 양식에 관한 고찰

2.1. 한국의 전통 건축사상

인간에게 공통으로 존재하는 미의식을 한 민족에게 국한시켜 해석하면 민족성과 나름대로의 전통성을 지니고 있다. 생활 방식이나 풍토, 역사, 그 민족의 기질 등이 바탕이 되어 형성된 전통문화는 주변 환경에 영향을 입어 발전과, 때로는 변질되면서 고도화되어 하나의 전통 문화로 정립되기 마련이다. 한국의 전통 건축은 대륙문화의 흐름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면서 한편으로는 일본 건축양식을 주지시키는데 많은 영향을 끼쳐왔다.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의 고건축은 스케일 면에서 압도적이지 않지만 시각적으로는 오히려 투박함 속에 보이지 않는 세련된 감각의 특징을 지닌다. 이와 같은 한국인의 정신세계 저변에는 우리 민족이 살아온 풍토, 즉 자연 환경적 배경과 종교, 철학 등에 기인한 사상적 배경으로 인한 전통사상은 한국인의 행동 생활 규범이 직접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한국 전통 사회를 형성하는 요인이 되었다(김 1996).

2.1.1. 자연주의 사상

건축물은 주위의 자연을 닮는다. 자연은 건축물이 서 있는 배경이 되기 때문이다.



Fig. 2. Korea traditional architecture and nature.

우리의 건축은 주변의 자연환경과 유기적으로 잘 융합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환경과 분리된 건축은 생각할 수 없으며, 건축도 대자연의 일부처럼 보인다. 자연을 다루는 방법이 일본인들처럼 축소시키거나 지나치게 가공하지 않고 자연을 그대로 받아들여 건축을 여기에 조화시킨 것이다.

한국의 전통 건축은 입지의 선택에서부터 자연을 존중하며 지세에 잘 적응 조화되도록 배려하여, 무기교의 자연미를 나타내도록 만들어졌다. 그로 인해 외관은 간소하며, 질박하고, 겸허한 멋을 풍기는 특성이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은 도가의 무위자연 철학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으며, 자연 지형에 따라 건축의 규모가 적절하게 조화되도록 하였다.

한국적 미의식의 자연주의 특색에 대해 김원용(金元龍)은 중국이나 일본의 짙은 화장과 화려한 의상을 한 배우에 비해 시골처녀에게서 느껴지는 겸손하고 소박한 순수미라고 하였으며 삼라만상을 있는 그대로 관조하는 경지로서의 순박한 자연주의라고 하였다(김 1996)(Fig. 1).

2.2. 한국 전통건축의 대표적 특성

한국 고건축의 가장 큰 특징은 자연과의 조화이다. 자연과의 조화는 동아시아 목조건축의 일반적인 특징이지만 한국 건축에서는 천연의 자연미를 중요시 여겨 소박하고 자연친화적인 미의 근간이 되었다.

한국의 고건축은 자연과의 융합으로 인해 비롯된 것으로, 이 성격은 고대로부터 한국의 자연환경과 더불어 이루어진 것이다. 자연의 본질에 근원적

으로 접합됨으로써 공간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오랜 농경사회를 거치면서 한국인의 대표적 특성인 친자연적인 자연관에서 연유된 것으로, 건축문화 특성을 나타나게 하였다(권 2001)(Fig. 2).

2.2.1. 인간적 척도

건물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이 인체의 크기와 적절한 조화를 이루며 각각의 사용기능을 암시할 때 비로소 휴먼 스케일이 얻어지는 것이다. 우리의 건축도 그러하다.

인간의 척도로 구성된 건축은 기둥간의 간격이나 처마 높이 등을 친근한 크기로 하여 시각적인 폐쇄와 개방을 적절히 조절하여 건물에 자연을 수용할 수 있게 공간적인 요소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자연의 조화는 인간적인 척도를 사용함으로써 세부적으로 완성되었다. 사람을 중심으로 자연을 더불어 수용하였다. 건물의 크기나 공간, 각각 요소들은 인체의 크기에 상응하도록 하여 위압감을 주지 않고 편안한 느낌을 주도록 배려하여 설계함으로서 그 결과 건축물의 외관은 아담하고 단아한 모습을 보여준다(임 1999)(Fig. 3).

2.3. 기둥의 형태구조

기둥은 지붕의 하중을 지면에 전달하는 수직 구조물이다.

기둥은 역학적인 구조로 건축물을 지지하며 의 장식과 장식기능 등을 달리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기둥이 나타나게 되었다. 기둥의 단면은 원형인 두



Fig. 3. Byeongsan Shoin, dongchundang landscape.



Fig. 4. Entasis column.

리기둥과 정사각형인 네모기둥이 주로 쓰이며 크게는 기둥의 생김새에 따라 귀솟음, 안솔림, 배흘림기둥으로 나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건축물의 시각적인 안정감을 배려하고 조형적인 요소가 내포된 배흘림기둥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배흘림기둥의 특징은 기둥머리가 가장 가늘고 차츰 기둥의 직경이 굵어져 기둥뿌리에서 1/3쯤 되는 곳이 가장 굵고 기둥뿌리 쪽으로 가늘어지도록 마름질된 것으로 구조상의 안정감과 착시현상을 교정하기 위한 심미적인 요인으로 작용되었고 흔히 서양 건축에서는 엔타시스(Entasis)라 하며 그리스 건축에서는 기원전 6세기경부터 사용되었다.

옛 그리스건축에서는 기둥의 높이에 대한 굵기나 배흘림을 인체를 옆에서 바라다 본 비례로 기둥의 모양이 남성적, 여성적이기도 한 여러 가지 기둥 형식의 건축물들이 만들어졌다(송 1987)(Fig. 4).

우리나라의 경우 매우 강직하면서도 부드러움이

융합된 대표적인 건축물은 부석사 무량수전이며 봉정사 극락전, 수덕사 대웅전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배흘림기둥의 특징인 역학적 구조와 안정감과 심미적인 요인들을 응용하여, 한국의 목가구 중 역사를 대변할 수 있는 산물인 반의 형태를 구성양식으로 하여 쓰임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였다(Fig. 5).

3. 반(盤)의 일반적 특징

3.1. 반의 개념

반의 가장 큰 특징은 운반 가능한 가구라는 점이다.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좌식 생활을 하며 식사하는 공간이 따로 분리되지 않고 온돌 문화가 혼합된 주거 환경과 식사공간과 조리공간이 분리된 공간 사이로 음식을 운반해야 하는 필요성에서 비롯되었다. 또 남녀유별, 장유유서와 같은 유교 이념의 영



Fig. 5. Korea's - traditional Korean.



Fig. 6. The construction of Soban.

향으로 성별과 신분에 따른 격을 형성해 일인일반제(一人一盤制)의 전통으로 크게 발전하였다. 소반은 지역적, 형태적, 쓰임새 등을 중심으로 한 특징이 확연히 구분되면서 다양하게 발전하여, 다른 목가구와는 다르게 계층을 막론하고 사용되었다. 조선시대 소반은 그 사용되는 목적이나 기능면에서 현대의 반과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나 양식적인 면에서는 조선시대 이후 서구적인 근대화 과정에서 수요에 편승한 대량 생산으로 단순성, 효율성 위주로 제작되면서 다양한 변화를 가져왔다.

3.2. 반의 구조적 특성

소반은 ‘반(盤)(상판)’과 ‘각(脚)(다리)’, ‘족대(足臺)’로 구성되어 있는 기본적인 생활용품으로서, 한국의 목칠공예의 양식적 특징을 ‘간결한 선, 명확한 면’으로 집약된 점은 구조주의적 측면을 두고한 말이다(이 1993).

소반은 다른 가구와 마찬가지로 선과 면의 단정하고 쾌적한 구조미가 바탕이 되는 가구이며, 운반 기능을 위하여 기물을 놓는 천판이 밖으로 나와 별도의 손잡이 없이 양손으로 잡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설계하여 그 짜임에 맞게 원형, 사각형, 다각형, 연엽형으로 제작되었다. 다리는 목재의 연결부분을 짜임으로 튼튼하게 짜 맞추어 시각적인 안정감을 주고 유려(流麗)함을 가하기 위해 운각을 끼웠다. 반은 일반적으로 크게 천판, 운각, 다리, 족대 등으로 구성되어 목재의 짜임으로 튼튼하게 결구하여 가는 다리로 무거운 반을 지탱할 수 있는 역학적 구조가 채택되었다(이 1999)(Fig. 6).

3.3. 반과 건축구조의 연계성

생활문화가 급진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대주거 공간에서 기능적인 면이나 조형적 측면에서 다양한 가구를 요구하게 되었고, 인간은 각자의 개성에

Table 1. Traditional Korean architecture and the connectivity with Soban

건축		소반		
지붕				
세부 명칭	전통 건축	세부 명칭	소반	표현 연계성
지붕	-자연경관의 조화 -자연환경에 의한 내구성	천판	-명확한 면 -간결한 비례와 분할 -인간공학적 배려	자연주의/ 인간중심
처마	-곡선의 아름다움 -선의 단아함	변죽	-손잡이의 합리적 설계 -형태적인 구조 -기능적 역할 (쓰임과 미)	절제미/ 기능(用)
창방	-양식의 구조미 -구조 순박미	운각	-가구제작 구조적 강도 강화 -짜임의 역할(기둥과 천판의 강도 강화)	구조미
기둥	-폐쇄와 개방 -역학적 구조 -시각적 안정감 -건축의 구성요소 -인간적 척도와 공간구성	다리	-인간중심의 척도 -좌식생활의 공학 -역학적 구조	역학구조/ 휴먼스케일
초석	-풍화작용을 고려함 -건축의 균형	족대	-전체적 구조의 안정감 -바닥의 균형	균형미/ 안정감

따라 아름다움을 추구함으로써 단순한 기능에만 치우친 가구가 아닌 자기 개성을 표출하는 대상으로 삼았으며, 한국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보편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박 1998).

반은 구조적 요소에서 한국의 건축과 많이 닮아 있다. 외부의 건축물을 축소시켜 내부로 옮겨 놓은 듯한 것이 우리의 전통 반과 유사하다. 전통건축과 전통소반은 형태, 구조적으로 다양한 연계성이 나타난다. 그 구체적 내용을 보면, 건축과 소반의 시각적인 안정감이나 절제의 미, 그리고 형태적, 구조적 측면과 재료적인 측면에서도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

또한 배흘림기둥의 멀리서 또는 밑에서 위로 바라보는 시각적 효과와, 소반의 위에서 내려다보는 관점에서의 착시효과를 완화시키는 것에 동의하며 올려다보는 시각과 내려다보는 시각과의 동질감이 조형미의 구현(具顯)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인다.

반과 건축은 자연의 조화와 인간적인 척도를 사용함으로써 세부적으로 정교하게 완성되어 건축물 외관의 단아한 모습으로 그 연계성을 보여준다(Tabl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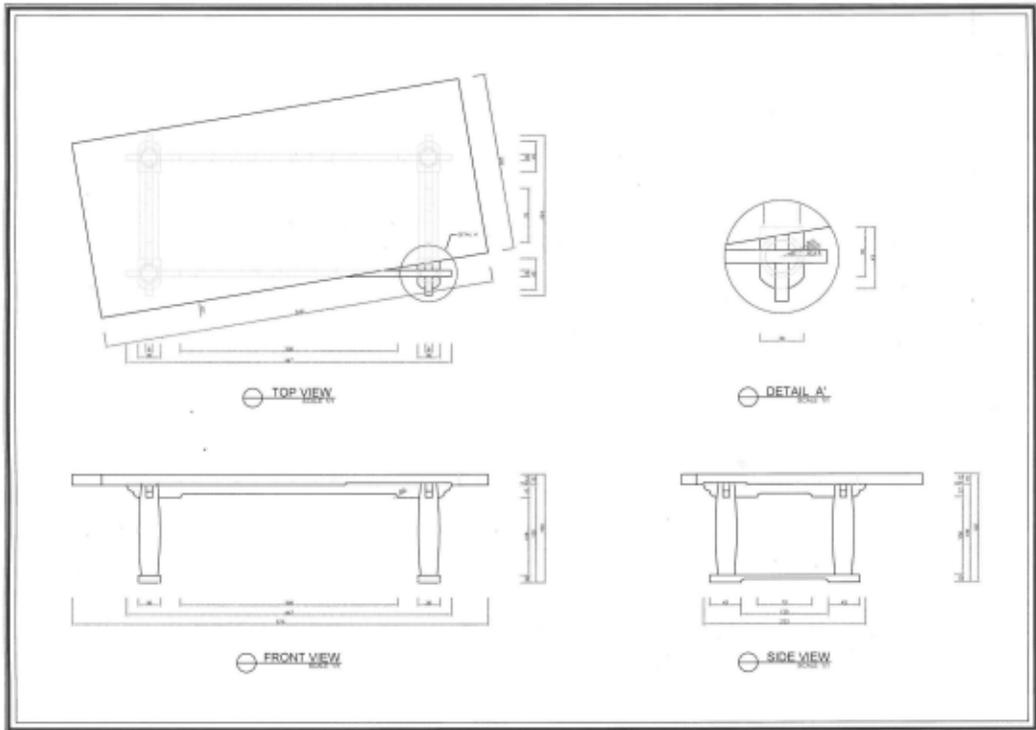


Fig. 7. Auto CAD drawing Soban.

4. 반(盤) 디자인 개발 시안

4.1. 디자인개요 및 전개

한국적인 정서가 함축된 한국 고건축의 요소를 차용하고 현대 생활공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실에 놓일 수 있는 반 디자인을 전통 소반에 근거를 두고 현대 감각에 투영되는 새로운 시각으로 다루고자 하였다.

한국의 전통 건축의 구조와 한국적인 정서가 깃든 배흘림기둥을 모티브로 하여 반의 외형은 땅을 상징하는 장방형을 취하고, 다리의 구조는 고건축 기둥의 양식 중 대표적인 배흘림기둥의 착시적 형태감의 적용으로 구조적 조형미를 주었다. 다리 제작은 배흘림기둥을 목선반 기법을 이용하여 반의 조형적 품격을 높이면서도 제작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상판과 다리의 연결은 소반에 주로 사용되어 온 운각 구조의 짜임기법을 활용하여 천판에 변화를

시도함으로써 의도적으로 결구의 구조를 노출시켜 신개념의 조형의지를 표명하여 고건축 짜임 구조를 적절히 안배하여 부합시키고자 하였다. 재료는 한국 수종 중 변·심재의 구별이 뚜렷하고 재질이 치밀하며 목리가 아름다운 느티나무를 사용하여 자연색과 무늬결이 은은하게 우리나라를 하였으며, 목재의 중량감 있는 텍스처(Texture)와 세련된 형태미를 최대한 이끌어 내도록 하였다 (Figs. 7-8).

5. 결 론

한국의 전통건축양식과 목가구는 실내 공간 내에서 유기적인 조화를 이루어 왔다. 독특한 건축구조양식에 의해 가구들 또한 실내 공간과 상응한 생활의 멋을 이끌어왔고 가구 또한 다양하고 개성적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연환경과 사상적 배경으



Fig. 8. Prototype (All, Part).

로 인한 입지의 선택에서부터 자연과 조화되도록 배려함과, 무기교의 자연미를 나타내도록 간소한 것과, 질박한 맛을 함축하는 것을 한국 전통 건축의 특성으로 추출해 내었다. 그리고 유교적 생활 양식의 검소함으로 인해 그에 부합되는 디자인 감각과 견실한 구조에 의한 기능이 어울려 전통건축과 목가구의 구조적 완결로 표현되었다.

한국의 대표적 전통건축인 배흘림기둥을(착시효과로 인한 시각적 안정성과 조형적 요소들) 모티브로 하여, 한(韓)민족의 고유한 전통을 지닌, 은유의 감수성이 내재된 반의 구조적인 조형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함으로써 미적구조의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디자인 요소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문화적 정체성이 중요시되는 현 시대에 부합되는 한국적 이미지의 창출로 현대인의 기호와 생활 공간에 접목될 수 있는 신개념 가구디자인의 단초가 되었으면 한다.

참 고 문 헌

- 김경숙. 1996. 한국 전통건축에 나타난 공간의 연속성과 공간디자인에의 적용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
- 김원용. 1996. 한국미의 탐구. 열화당. 59-60쪽.
- 권영걸. 2001. 공간디자인 16강. 국제. 142.
- 박형철. 1998. 조선조 건축구조를 이용한 床디자인 연구. 홍익대학교 학술연구. 5.
- 송민구. 1987. 韓國의 옛 造形意味. 기문당. 116쪽.
- 이남희. 1999. 현대소반의 양식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7.
- 이종석. 1993. 한국의 목공예 上. 서울 열화당. 90쪽.
- 임석재. 1999. 우리 옛 건축과 서양 건축의 만남. 대원사. 161쪽.
- http://www.najuban.com/pub/board/bbs_free_read.html?uid=15&cboardID=pic02010_1&key=&orderBy=&cateID=5&page=
- http://www.krt.co.kr/oversea/oversea_schedule_go.asp?good_cd=15020121
- <http://adventure.or.kr/1043>
- <http://blog.daum.net/ohjback/5564>
- <http://younghwan12.tistory.com/1018>
- <http://simjeon.kr/xe/daejeon/5771>
- http://www.krapht.pe.kr/xe/index.php?mid=byungsan&document_srl=33799
- http://blog.daum.net/vietnam_lee/15670439
- <http://historia.tistory.com/679>
- <http://kym5219.tistory.com/5503>
- <http://blog.daum.net/luck3737/7030505>
- <http://blog.daum.net/todeka/8771184>
- <http://blog.daum.net/missoro/2630>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ubiquee&logNo=20157312076>